

따뜻한 겨울 ... 아웃도어 매출 '공공'

다운재킷 등 매출 반토막

할인행사 재고털기 안간힘

소비자 즐기고 브랜드 늘어 문제

“작년 이때에는 없어서 못 팔았는데 올해 다운재킷은 아직 절반도 못 팔았어요. 제품 생산량은 잔뜩 늘렸는데 지난해만큼 못 팔아서 전체 매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니다.”

올 겨울 다운재킷 판매 부진으로 아웃도어 업계에 위기가 감돌고 있다. 예년보다 추울 것이라는 예보만 믿고 다운재킷·패딩 등 겨울 상품 생산량을 늘렸는데 예상 밖으로 날씨가 따뜻해 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8일 지역 아웃도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웃도어 겨울 매출의 40% 이상은 주로 10~11월에 발생하는 데 올해는 초겨울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겨울 장사에 큰 낭패를 봤다”며 “아웃도어 대리점 등에서 재고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 팔면서 업체마다 이익구조가 크게 악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겨울(지난해 10월~올해 1월 중순) 다운재킷 판매율은 40%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70%에 훨씬 못 미쳤다. 업체들의 재고자산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A브랜드의 경우 전년 대비 68%, B브랜드와 C브랜드도 각각 60%, 30%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웃도어 업체들은 겨울 상품 재고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지하 1층 점행사장에서 아이더·밀레·블랙야크 등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들을 최고 70%까지 할인하는 이벤트를 열었지만 매출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입점 브랜드들도 올 겨울 신상품

을 20~40% 할인판매하면서 세일경쟁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집 자체적으로 할인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아웃도어 업계가 한계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금남로와 수완지구, 무등산지구 등 광주 지역 주요 점포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업계는 아웃도어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 데도 브랜드 숫자만 늘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B브랜드 관계자는 “가격할인으로 이익이 줄더라도 봄 신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고가의 해비다운 재고율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며 “제품 구매를 원하는 잠재적인

소비자들도 가격이 내려갈 것을 예상해 버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이달 중 승부를 보려고 재고물량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매출보다 재고의 증가속도가 몇 배나 높은 것을 보면 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아웃도어에 시장을 빼앗겼던 스포츠, 골프 업체들의 공세가 시작되고 있어 중소브랜드의 고전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블랙야크와 K2 등은 해외진출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걸음마 단

계라 당장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노스페이스와 코오롱스포츠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아웃도어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코오롱스포츠는 아웃도어가 더 이상 산에서 입는 옷이 아니라 일상에서 편하게 입는 옷이라는 콘셉트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식상한 아웃도어에 감동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에 맞춰 디자인과 가격정책 등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파파야 농장 일손돕기

금호타이어 공채 신입사원들이 지난 7일 곡성 입면 곡성공장 인근 파파야 농장에서 일손 돕기에 나서, 지역 농가와 상생협력 과정을 체험했다. <금호타이어 제공>

“기업들, 설연휴 5일 쉬고 상여금 118만원 준다”

경총, 285개 기업 조사

연휴일 작년보다 0.8일 늘어

기업들의 올해 설 연휴 일수는 평균 4.8일로 작년보다 0.8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80% 가까운 기업이 설 상여금을 줄 계획이며, 평균 지급 액수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117만9000원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2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연휴와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는 설 연휴 3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이어지며 5일을 쉬는 기업이 75.6%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가 토요일과 겹친 작년의 경우 4일을 쉬는 기업이 70.0%로 적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5.0일, 중소기업은 4.6일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 공휴일 외에 추가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은 그 이유로 취업규칙·단체협약상 명문화(45.7%)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근로자 편의 제공(30.2%), 연차수당 절감(11.2%) 등의 대안이 뒤를 이었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율은

78.1%로 작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79.5%, 중소기업은 77.6%가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81.6%가 상여금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69.4%에 그쳤다. 설 상여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연봉제 실시(41.7%), 지급규정 없음(31.7%), 지급여력 부족(21.7%) 순으로 꼽혔다. 1인당 평균 상여금 지급액은 작년(113만4000원)보다 4.0% 늘어난 11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170만4000원으로 작년(164만원)에 비해 3.9%,

중소기업은 106만5000원으로 작년(113만4000원)보다 4.0% 각각 증가했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636회)		2등번호 숫자	
당첨번호	2등번호 숫자	당첨금(원)	당첨자수
6 7 15 16 20 31	2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832,362,219	8	
2 5개 숫자+번호 숫자일치	55,526,128	44	
3 5개 숫자일치	1,238,292	1,973	
4 4개 숫자일치	50,000	90,830	
5 3개 숫자일치	5,000	1,461,300	

125억 들여 중기 맞춤형 컨설팅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내달 13일까지 접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정장 류봉길)은 9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총 12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집단 연계형(57억원), 수요자 선택형(68억원)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컨설팅 지원한다.

올해는 중소기업, 컨설팅 업계 등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해 그동안 사업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별도로 운영되던 특화형 컨설팅을 집단 연계형 컨설팅에 통합해 사업을 단순화하고 진단과 관련해 불편함을 제공하던 중간과정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

소화했다. 컨설팅 기업에 대한 정의를 업력 5년에서 7년으로 변경해 관련법과 일치시키고 지원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동일 연도에 현장평가는 1회만 실시하는 등 수요자 편의도 높였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청 및 중진공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거나 수요자 선택형의 상반기 접수기간인 3월13일까지 컨설팅 종합관리 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류봉길 청장은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상의 애로해소는 물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전, 디지털변전소 검증기술 개발美기업에 이전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고 있던 디지털 변전소 검증기술을 한전 연구원이 자체 개발에 성공해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8일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디지털 변전설비 성능검증 시험시스템 ‘IEC 61850 클라이언트 시험시스템’ 등 2건을 최근 미국 스마트그리드 전문시험기업인 칼리티로지(QualityLogic)사에 기술 이전했다. 디지털 변전소 검증 기술은 최근 건설되는 변전소가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요구되는 통신 기술이다. 이 때 사용하는 통신방식은 ‘IEC61850’으로, 현장에 설치된 디지털 기기가 IEC61850의 규정보다 동작하는 지 시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련 기술은 그동안 유럽과 미국 기업이 독점해 시장을 지배했으나 한전연구원이 지난 10여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 디지털 변전소에 대한 적용도 성

공적으로 마쳐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변전소 성능진단 및 시험기술을 확보했다. 한전은 국내 시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지난 2013년 8월 기술을 이전하고 KTL이 IEC61850 국제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해 활용 중이다.

한전은 이 밖에도 국내 6개 중진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칼리티로지사와 지난 3월 미국 현지에서 기술 이전에 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전은 이번 기술을 통해 최근 스마트그리드 업계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상호 운용성 문제를 IEC61850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변전소 검증기술은 신재생에너지·전기차·AMI·ESS 등 각 분야를 연계하는 솔루션으로 활용 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 41개 농·축협 ‘클린뱅크’ 인증 받아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전남 지역 41개 농·축협이 자선건전성 비율 2.0%를 기록해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클린뱅크’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클린뱅크란 부실채권이 없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농·축협으로 연체비율과 고정이하비율이 0.3% 미만, 대손충당금 적립률 120% 이상, 손실흡수비율 80% 이상, 예대비율 3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금·은·동 등급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3년 연속 ‘금’ 등급을 인증받은 경

우 ‘그랑프리’ 탈선타입을 수상한다. 이번 인증에 담당 부서는 3년 연속 클린뱅크에 선정돼 최고 등급인 ‘그랑프리’ 탈선타입을 수상했다.

강남경 농협전남본부장은 “자선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건전성 관리가 올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건전성 관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6.25세대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한울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분사 프랜차이즈입니다.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혁신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형 브랜드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네이버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